

의안번호	제 2019 - 23호
보 고 연 월 일	2019. 12. 9. (제98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1
1. 제129차 전체회의	1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1
II. 카메라등이용촬영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범죄군 명칭 등)	2
1. 범죄군 명칭 : '성범죄' 명칭 사용의 적정성 여부	2
2. 대유형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양형인자 검토 결과	3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3
나. 검토 결과	3
3. 대유형2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인자 검토 결과	15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15
나. 검토 결과	15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22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22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23
III. 향후 일정	25
1. 제130차 전체회의	2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3

【별첨】

- 김호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집행유예)”
 - 김춘수, 장일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김호용, “성범죄/성폭력범죄 명칭 검토”
 - 최승원,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정초아,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등)”
 - 김호용, “교통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검토”
 - 김춘수, 장일희,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

I. 전문위원 회의

1. 제129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9. 11. 11.(월) 15:30~21: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나.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박성훈, 장일희, 정초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범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국외출장으로 불참)

다. 주요 안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기준 설정 방안(범
죄군 명칭,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9. 12. 2.(월) 16:00~19:20
- 장소 : 대법원 464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호용, 장일희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한상규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양형기준 해설 제2차 수정 초고 검토

II. 카메라등이용촬영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기준 설정 방안(범죄군 명칭 등)

1. 범죄군 명칭 : ‘성범죄’ 명칭 사용의 적정성 여부

가. 검토 배경

- 전문위원단에서는 제127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2019. 10. 25. 열린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가 보고됨
- 당시 보고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의 적정성 여부

① 다수 의견(10인) : 적절하지 않음

- 설정 대상 범죄의 범위,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 수단의 존재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 개념 정립에 혼동을 줄 우려 등 고려

② 소수 의견(1인) : 적절함

- 디지털 성범죄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대부분 범행 수단이 디지털 기기인 점 등 고려

2. 제1 쟁점에 관한 다수 의견이 제안한 범죄군 명칭

① 다수 의견(8인) : 「카메라·통신매체 등 이용 성범죄」

- 카메라와 통신매체라는 대표적 행위 매개 수단을 열거하고 상위 포섭 범죄(성범죄)를 언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② 소수 의견(2인) : 「카메라 등 매체 이용 성범죄」

- 향후 다른 범죄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포섭 가능성 고려

-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에서는 범죄군 명칭으로서 「디지털

「디지털 성범죄」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음. 그러나 「성범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에 추가 검토 요청

나. 검토 결과

(1) 다수 의견(9인) : 「성범죄」 명칭 사용이 적절함

- 현행 법령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는 통일적·일반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학계나 실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성범죄 대신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
-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보호법’으로 약칭함)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함)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범죄에 포섭하여 성폭력범죄와 구별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형기준에서 성폭력범죄로 분류할 경우 개념상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강제추행, 강간과 구별됨.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태양이 통상적인 폭력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
-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추가 설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외연이 더 넓은 ‘성범죄’라는 표현이 적합함.

즉 성범죄 중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까지 아우르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2) 소수 의견(3인) : 「성폭력범죄」 명칭 사용이 적절

- 최근 디지털 기술이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문제되고 있는 촬영이나 유포, 판매목적의 유통·판매 등에 있어서 디지털 범죄가 갖고 있는 폭력적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범죄군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지털 혹은 온라인이라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폭력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력성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젠더 감수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2. 대유형1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96차,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 및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	반포 등	4월-10월	8월-2년	1년-3년

나. 검토 결과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u> • <u>비난할 만한 범행동기</u> • <u>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u> •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u>범행에 취약한 피해자</u> • <u>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u>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u>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u>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지식재산권범죄, 방화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경매·입찰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그 외의 범죄군에서도 유사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의 대상,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실무상으로는 촬영된 신체의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경 사유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 그러나 양형 과정에서 촬영된 신체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아 예시에서 제외함

② 농아자 / 자수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합의 관련 양형요소가 일괄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종전 양형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만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특별가중인자

①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양형위원회 제96차 정기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함
- 위법성과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할 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②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일반감경인자

① 소극 가담

- 공범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살인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영리목적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2유형에 한하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재산범죄가 아니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는 않음)
- 조세범죄, 성매매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등에서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상당 금액 공탁

-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 교통범죄 등에서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 일단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되,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방안이 확정 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여부를 검토

④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라) 일반가중인자

①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전과에 ‘성범죄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다소 넓힘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②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성범죄, 약취·유인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하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질적 구분 방안

㉔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살인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조직적인 범행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㉕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성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으로 표현을 고쳐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다수 의견에 따른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행위자적 요소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한 것은 주로 주취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경 요소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님
-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에서 당연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오히려 양형기준의 체계적 정합성을 해침[현행 양형기준 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전부, 대부분의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음]
- 다만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심신미약 상태 야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양형기준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제6기 양형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함[서술식 기준은 성범죄 양형기준(2018 양형기준 책자 29쪽 하단) 참조]

②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하자는 견해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특례와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①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 적극(의견 일치)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횡령·배임, 증거인멸·증인은닉, 사기, 증권·금융범죄, 공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도주·범인은닉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가중인자

②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 의견이 일치된 부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❶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❷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 ❸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한 경우
- ❹ 촬영물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얼굴이 노출된 경우

○ ❶ 예시 포함 여부

- 다수 의견(9인) : 범행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공범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음. 현재 예시와 같이 주범으로 한정하여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3인)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속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주범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함

○ ❷ 예시 포함 여부

- 다수 의견(8인)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4인)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와 함께 양형상 이중으로 고려되어 양형요소의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의 규정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함

한편, 소수 의견을 취한 전문위원 중 2인은 ❷ 예시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항상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절충하여 별도의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③,④ 예시 포함 여부**

- **다수 의견(11인)** : 특별가중인자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범행 수법과 무관한 예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③,④** 예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다수 의견을 취한 전문위원 중 ① 7인은 **③,④** 예시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자는 입장을, ② 4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이미 포섭되므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
- **소수 의견(1인)** : **③,④** 예시는 모두 범행수법과 관련된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포함함이 바람직함

(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①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 적극(의견 일치)

- 형법 제51조 제3호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할 요소로 범행의 동기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②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 의견이 일치된 부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거워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영리목적의 경우

○ 다수 의견(8인) : 제외

-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상황에서 영리 목적을 다시 가중인자로 반영하면 양형요소의 이중평가 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
-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과 같이 법령상 가중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통계적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유형에 걸쳐 영리목적의 일률적으로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 제1 소수 의견(2인)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양형요소의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특별가중인자가 아닌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제2 소수 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은 ‘영리 목적’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므로,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에 있어서 '영리 목적'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 가중함이 타당함

(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7인) :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사기범죄,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 공갈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성범죄의 경우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범행수법과는 구별되는 양형요소임
- 판결 분석 결과 피해자 수에 따른 형량편차 존재

② 소수 의견(5인)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반영

- 특히 특별가중인자의 경우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설정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포함됨

○ 별도 양형인자로 둘 경우에도 양형인자 정의는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①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 적극(의견 일치)

- 살인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범죄, 강요범죄 등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②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 정의 규정에 대하여 일부 의견이 불일치함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인 ❶ 예시를 포함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❷ 예시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 ❶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❷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제1 의견(6인) : ❷ 예시를 포함

-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개념을 넓혀서 기존 정의 규정상 '연령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자'에 포섭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까지 포함되도록 함

○ 제2 의견(6인) : ❷ 예시를 제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규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크지 않고, 기존 정의 규정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자'로 충분히 보호됨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①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 적극(의견 일치)

- 횡령·배임범죄, 명예훼손범죄, 사기범죄, 지적재산권범죄, 공갈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성범죄, 성매매범죄에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라는 사유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②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정의 규정

㉠ 의견이 일치된 부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나체, 성관계 등)의 촬영물이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직장동료 기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❶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한 경우
- ❷ 촬영물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얼굴이 노출된 경우

- (다)항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논의 결과와 같이 ① ①,② 예시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자는 다수 의견(7인)과 ② ①,② 예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다른 예시에 포섭되므로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소수 의견(4인) 있음

(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① 다수 의견(9인) : 일반감정인자에 포함

-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상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 존재함
- '심신미약'이라는 양형요소가 양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서술식 기준을 둬으로써 주취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② 소수 의견(3인) : 일반감정인자에서 제외

- 성폭력처벌법 제20조의 특례와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을 일반감정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3. 대유형2 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96차,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 및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6월

나. 검토 결과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u>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u>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u>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양 형 인 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	---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① 농아자 / 자수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②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합의 관련 양형요소가 일괄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종전 양형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성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만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특별가중인자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체포·감금, 강요, 업무방해, 손괴 등 범죄군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성범죄에서는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반복적·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
- 양형인자의 정의 불요

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명예훼손범죄, 사기범죄, 지적재산권범죄, 공갈범죄, 권리행사 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성범죄, 성매매범죄에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라는 사유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살인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체포·감금범죄, 강요범죄 등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미성년자 등 취약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 양형인자의 정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달리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음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일반감경인자

① 소극 가담

- 공범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살인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상당 금액 공탁

-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 교통범죄 등에서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 일단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되, 2020년에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여부를 검토

③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라) 일반가중인자

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 중 범행을 주도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증가하므로 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일반감정인자로서 '소극 가담'이 반영되었으므로 이와 대칭되는 양형요소가 필요함

②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집행유예 또는 실형전과에 '성범죄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다소 넓힘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성범죄, 약취·유인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하게 합의를 중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질적 구분 방안

㉠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살인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책임에 비례하는 양형을 위해 범행가담의 태양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인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② 다수 의견에 따른 양형인자의 정의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① 질적 구분 방안

㉠ 다수 의견(7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지식재산권범죄, 방화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경

매·입찰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그 외의 범죄
군에서도 유사한 인자들을 특별감경요소로 규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㉞ 소수 의견(5인) :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실제 사례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고, 감경의 필요성도 거의 없음

②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 양형인자 정의 규정 : 다수 의
견(11인)¹⁾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
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대유형1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

①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에 반영

②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대유형1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

1)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는 데 반대한 전문위원 5인 중 1인은 특별감경인자로 구분될 경우를 가정
한 양형인자 정의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정의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음.

- ① 다수 의견(9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②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양형인자 부분과 검토 결과가 동일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u>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u>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 의견(10인)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살인범죄, 성범죄, 성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등에서 동일한 형태로 규정
 - 양형기준상 10년 이내 1회 벌금 동종 전과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음
- 소수 의견(2인) : ‘동종 전과(10년 이내 벌금 이상)’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경우 동종 전력은 대부분 벌금형 이상일 경우가 많음
 -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과를 중하게 고려하여 함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양형인자 부분과 검토 결과가 동일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대유형1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
- 다수 의견(10인)은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소수 의견(2인)은 '동종 전과(10년 이내 벌금 이상)'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III. 향후 일정

1. 제130차 전체회의

- 일시 : 2019. 12. 23.(월) 14:00 ~
- 안건 : 교통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검토, 선거범죄 수정안 의견조회 검토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 일시 : 2020. 1. 3.(금) 10:00 ~
- 안건 : 양형기준 해설 제3차 수정 초고 검토